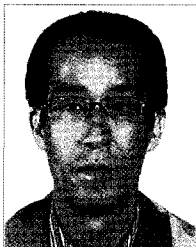


전원생활을 즐기게 해준 '마당을 나온 암탉'

얼마 전 여름휴가 때, 나는 지인과 소양강 지류로 낚시를 떠났다. 원했던 붕어낚시는 못했지만 피라미를 원 없이 구경하고 돌아왔다. 아내와 시간조율을 하지 못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휴가 마지막 날에 영화라도 보러가자고 했다. 흔쾌히 허락한 아내는 영화를 검색해보고 딸아이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감동적이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상영한다는 극장을 찾을 수 없어 '제7광구'를 보았다. 나는 SF 영화로서 한국영화는 정말 상상력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 아내는 모처럼 나와 함께 한 시간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즐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으로 이미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사실 나도 아내가 책, '마당을 나온 암탉'을 수차례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차에 동승한다든지 한가로운 휴일 오후에 집에서 노닥거릴 때, 조잘조잘 귀를 즐겁게 해주던 이야기에 그 책은 자주 등장했다. 또 아내는 책에 등장하는 청둥오리를 가장 좋아해서 자기의 문집 필명으로 삼았다. 자신의 이름 맨 끝자 '덕(duck)' 과도 잘 맞는다고 하면서...



나재천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닭을 소재로 한 책이라든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지만 ‘따당을 나온 암탉’은 그 중에서 가장 여운이 남는다. 내가 그 책을 처음 접한 것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그 당시 동물복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는 시기였다. 아내는 내가 번역한 논문 중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에 유난히 관심을 두었는데 이 책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서 순환하는 자연속의 한 개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불평할 거리가 많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도 하고 노벨문학상이 논의되면 이런 책이 외서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마니아도 이런 마니아가 없다.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마치 내가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되었지만 어느 날 아내의 손때가 묻은 책을 읽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산란계로 지내오다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어 폐기 처리될 운명에 처한 ‘잎싹’은 수많은 알들을 낳았으나 정작 알을 품어 부화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잎싹’의 소망은 죽기 전에 병아리를 품어보는 것이었다. 호시탐탐 탈출기회를 노리던 ‘잎싹’은 마침내 닭장을 탈출했으나 방목된 수탉과 암탉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야생으로 나온다. 그곳에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청둥오리를 만나고 죽은

암컷 대신 오리 알을 품어 마침내 부화시킨다. 자신의 할 일을 마친 청둥오리의 최후와 함께 찾아온 위기를 ‘잎싹’은 강력한 모성본능으로 극복하면서 새끼오리(초록머리)를 성장시키고 자연에 순응하듯 그 또한 새끼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족제비에게 희생된다.

어찌 보면 매우 슬픈 내용이다.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비교적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이 나와 아내의 인생관에 커다란 작용을 했다.

농촌에 집을 짓고 조그만 텃밭농사를 지으며 대여섯 마리의 닭을 키우는 동안 아내는 주변의 많은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내게 보고를 했다.

시골에서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운전을 못하는 그녀를 위해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에 집을 지었다. 그래도 도시생활에 익숙했던 그녀가 불평이라도 할까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빠르게 주변 환경과 동화되어갔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포착하는 모습은 신선하기 그지없었다.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그녀의 성격은 자연에 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우체통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를 통해 떨어져 있는 딸아이를 그리워하고 집에 날아든 제비를 관찰해 애잔해하기도 한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쥐를 잔반 처리반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음식 찌꺼기를 처리할 요량으로 닭을 키웠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실망스러워하던 그녀는 가장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쥐들을 퇴비장에서 보고 객관적으로 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보상을 받게 되는지 때로는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가마솥을 걸어놓은 아궁이 앞에 쌓아놓은 눈 속에 발자국도 선명하게 눈터널을 만든 네 마리의 쥐에 대한 이야기는 아내의 입을 거쳐 매우 환상적인 동화로 변신했다.

잔반은 처리하지 못하는 닭들이지만 개개의 특성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또 다른 이야기를 보고 받는 즐거움을 주었다. 수컷은 품생품사의 '폼식이', 재치 만점이며 잿빛을 띤 '재동이', 모성애가 강하고 빛깔이 아름다운 '미녀', 우리집 파수꾼 '수니'가 강아지일 적에 천방지축 닭장에서 알짱거리는 녀석과 당당한 포스로 대치를 하던 '아줌마' 등등...

옥수수를 따서 함께 나누어 먹고 배춧잎을 던져주거나 게걸스럽게 농작물을 탐식하는 메뚜기를 잡아 주기도 하면서 닭들과 신뢰를 쌓아 갔다. 덕분에 키우던 닭들은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는 가족과 같은 친근함으

로 다가왔다.

그렇다고 자신의 시선을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재동이 희생되었을 때, 애달아하면서도 그 존재에 대한 악의 섞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 '마당을 나온 암탉' 속에 표현된 자연의 순환 고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에 대해 작가와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유연한 생각은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든다. 다른 생물들에 대한 관대함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고 많은 생명들이 주변에 깃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유난히 벌레와 개구리, 두더지, 참새가 많다. 아내는 그 속에서 특유의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참새가 비닐 멀칭위에서 미끄럼을 탄다든지, 흙 구덩이를 파고 흙 찌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수다를 떨면 나는 그것을 안주삼아 술도 한잔하고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즐기도 한다.

이래저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지은 작가에게 고맙기 그지없다. 농촌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내의 반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힘든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고 인생의 지침을 주었던 그 책 덕분인 것 같다. 